

### 지상 법석

# 우주 전체가 바로 내것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옛 모습 그대로 설법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눈이 뜨이면 옛날 것도 다 보이고, 미래의 것도 다 바라볼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경지가 되려면 다라니를 공부해야 합니다.

다라니에는 티끌 하나라도 그 속에 시간과 공간의 어떠한 것이든 모두 비쳐보일 수 있는데 이를 사사무애(事事無礙) 즉, 결림이 없는 경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물에는 작은 티끌에조차 삼세제불의 과거·현재·미래 만상이 다 들어 있으며, 일체 중생의 하는 바가 다 들어 있고, 일체 기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하여 사사무애라고 하지요.

트인 사람은 티끌 하나를 보아도 일체를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 수 없는가. 그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본디 맑고 밝은 마음자리가 바뀌고 만 것이지요.

### 결림이 없는 경지

옛날 중국에는 사람이 죽어 문힐 때 그 사람이 평소 소중히 여긴 물건과 노비, 첩을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순장(殉葬)이라고 하는데, 귀한 목숨들을 재물로 함께 묻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 허송세워 욕심

**부처님이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사는 자리, 즉 다시 말하면 눈에 가면 보고, 귀에 가면 듣고, 손으로 가면 만지는 생명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를 안 부처님은 따라서 모든 것이 자재한 분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하나로 만들려면 만들고, 천을 만들려면 만 들고, 크고 작게, 무(無)와 유(有) 등 마음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 말인즉, "생전의 정신이 맑을 때에 아버지는 시집 보내라 하셨습니다. 정신이 없을 때에 순장하라 하신 말씀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몇해 후에 전쟁이 났을 때 위로는 장수가 되어 전쟁에 임하게 되었는데 상대가 워낙 큰 세력이라서 걱정근심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적진에서 이쪽을 향해 추격하고 있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초원의 풀을 잡아매면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이처럼 욕심을 버리면 복을 얻는데 욕심, 내 생명이 하나 따로 있다고 하는 집착을 버리면 우주전체의 생명을 만나게 되고 우주가 자기의 것이 될 때를 지혜, 아늑다라삼막삼보리라고 합니다. 우주전체의 법성인 생명을 하나인 줄 모르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식(識)이라고 합니다. 이 식 때문에 안으로는 욕심이 생기고 밖으로는 욕진이 생겨서 아연히 18계가 벌어지

이 요주의 중도입니다. 이것은 율게 배우는 자재가 아니라 옛부터 가지고 있던 버릇이며, 불법문중에 들어와서도 달라진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 불법의 속 깊은 이치는 끝내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전에서 '우주의 생명체인 불성은 하나'라고 했으나,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님을 모두 명심해야 하셨습니다.

조실스님인 마조스님과 청년 수좌 백장스님이 어느 강가를 거닐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조스님이 기러기떼가 훨훨 나는 모습을 가리키며 "저 새가 보이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보입니다" 수좌가 대답하자 한참 지난뒤에 "지금도 그 새가 보이는가?"를 다시 물었고 "자금은 남아가서 안 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조스님이 백장스님의 코를 잡아비틀었고, 백장스님은 "아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마조스님이 "여기 그대로 있는데 어디로 날아갔다고 하느냐?"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날개짓 하며 나는 새의 기운과 자기 코의 아픈 기운이 두 가지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는 물이 아닙니다. 한 기운이 눈에 가면 보고, 귀에 가면 듣고, 기러기 속에도 들어가고, 사람속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 불교의 의료정신

김성규

의학이 육신의 병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불교는 마음의 병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병을 다스리는 근본 재료는 자비심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탐욕스러운 마음과 화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병의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데 자비심은 이러한 사악한 마음을 다스려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을 제거해 버림으로 다음 생에서도 건강한 육신과 정신을 갖고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본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느 때 염부제에 8만 4천 명이 있었고 성에는 50억이나 되는 마음이 있었고 외국에는 6만의 마음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때 한 병자가 있어 일체시왕을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였다. 왕은 염부제에 있는 의사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의 병에는 어떤 약을 주어야겠

겠)을 생각할지나. 29일이 지난 뒤 왕은 의사를 시켜 그 사람의 병을 확인하게 하였더니 병자가 완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때의 일체시왕이 바로 나(부처님)의 전생이며, 그 때의 병자가 지금의 대바달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에 가득 찬 얼굴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깨끗한 화신지에 더러운 물이 묻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할 수 없듯이 대바달의 나쁜 성품은 전생에서도 이 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빗물이며, 잘들여라. 이 병을 진정으로 낫게 하는 것은 끝없는 자비심 밖에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불교의 의료정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의 변화를 잘 관찰하여 병의 종류와 병의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대한 치료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이므로 우수한 의술을 배우고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병자를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공평명최승왕경)에서도 자비심으로 병자를 대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재물을 탐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한 행위에 대한 댓가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선생경>에 말하기를

### "탐욕·성냄·어리석음은 마음의 병 자비심으로 치료"



는가? 여러 의사들이 진찰을 한 뒤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의 병에는 어떤 약도 효험이 없습니다. 다만 보살만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왕은 나서 물었다.

"어떤 병이길래 보살 밖에 안된다는 것인가?"

의사들이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병에는 자비심이 있는 보살의 생활과 생과를 먹고 29일이 지나면 병이 자결로 낫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일체시왕은 시자에게 칼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자신의 비장의 살을 베어 다음 계승과 함께 그 병자에게 주었다.

일체의 모든 산과 바다를 나는 무겁게 보지 않는다.

도무지 고치는 바 없는 자를 무겁게 본다. 바른 말을 듣고도 고치지 않는 자는 문둥병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빗물이며, 마땅히 보은(報

민약에 병자가 가난하고 재물이 없으면 의사는 병의 처방을 가난한 사람의 능력에 맞는 것으로 할 것이며, 민약에 병자가 재산이 많으면 여러가지 탐욕을 권하여 그 사람의 능력껏 병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분수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주장하고 있어서 병들어 있는 환자께 정신적인 부담을 주지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에게나 똑같은 치료를 시술하는 것이 가장 자비심이 많은 인간애가 풍부한 치료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분에 맞지 않는 치료는 환자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거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이다.

<선생경>에 또 말씀하시기를

"또 병자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이나 식품을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라."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이해 시킴으로써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져와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임종에 가까운 환자에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으며, 그 병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고 환자 스스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도록 주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처방일 것이다. 결국 의료행위는 생명에 대한 의경(畏敬)이 없으면 기술에 불과한 것임을 부처님의 자비심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염부대 의대교수>

## '육바라밀수행'으로 마음속 먼지 제거 "트인 사람은 티끌서도 일체를 보게돼"

을 벗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생매장되던 것입니다.

중국의 진나라 때 위무부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일흔이 넘는 나이에 갓 스물 넘은 처녀에게 새장가를 갔답니다. 그에게는 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네 젊은 어머니의 청춘이 불쌍하니 좋은 자리를 보아 시집 보내달라고 이르곤 하였지요.

그런데 어느날부턴가 병석에 누운 뒤로부터는 죽은 다음에도 함께 살고 싶다는 욕심으로 아들에게 순장을 해달라고 하였답니다. 후에 위무부는 죽었고 아들이 꿈같이 생각해보니 흉계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함께 순장에 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마친 뒤 젊은 어머니를 적당한 인물에게 시집 보내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 부모의 유언을 따르지 않은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는데 위과

타고 달려오면 적군은 모두 목인 풀에 말발굽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이쪽 편이 승리를 거두었지요. 깨달고 나면 진여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나무에 들어가면 나무가 살고, 벌레에 들어가면 벌레가 살고, 사람에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 그 생령체는 하나일 것입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성품은 하나라는 것이지요.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육진 경계를 따라서 무당망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깨달고 나면 진여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나무에 들어가면 나무가 살고, 벌레에 들어가면 벌레가 살고, 사람에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 그 생령체는 하나일 것입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성품은 하나라는 것이지요.

### 만물이 서로 친구

우리는 마음을 흔히 허공에 비유하곤 합니다. '허공과 같다'라고 표현하며 이는 허공보다 더 모호하다는 의미입니다. 허공과 비슷한 한 허공과 마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 선사가 '너도 불성이 하나 있고 나도 불성이 하나 있다'고 말하면, 자기도 그렇구나 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의상조사 범성계에서도 범성원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이라 하여 우주법체는 하나이지 둘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천지 대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즐거움을 노래한 계승이 있습니다.

壽日權操坐 (진일성성좌)  
乾坤一眼中 (건곤일안중)  
有朋來草屋 (유朋래초옥)  
明月與清風 (명월영청풍)

진종일 회두가 성성하게 앉아 있노라니 / 하늘과 땅이 한 눈 속에 있이라 / 벗이 초옥을 찾아오니 /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로다.

정신 육체를 맑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공예의 수성이 근경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계산제 복용·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염분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 가이드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 단식으로 효과보는 법

-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 위장병, 빈혈,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 숙능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약물중독 외

■ 수련장: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 안 내: ☎ (0593) 34-1115~6

##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 "월간 <대중불교>를 만나십시오"

수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도반은 필요합니다. <대중불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법에 입각한 수행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불자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과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불교진흥원(지) <대중불교>가 우리의 삶을 행복과 보람으로 이끌어 줄 대중불교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로 신청하세요!

불교방송교재  
'정진공부' '고리강좌' 불교영어 한마디를 권할부족으로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월간<대중불교>  
전화: (02)773-5731, 752-7047 / 팩스 (02)771-6796